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상담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실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6월 4일 월요일 (음 4월 21일)

제206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6·13 지방선거 D-9... 여야 중앙당, 전북도내 후보자 지원사격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둘째 날인 지난 1일 오후 전주시 모래내시장 사거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나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 송해진 전북도지사 후보 등 시도의원 후보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2. 같은 날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천정배 의원, 임정엽 전북도지사 후보, 배승철 광역의회 익산제1선거구 후보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다짐을 하고 있다. 3.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권태홍 전북도지사 후보 등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있다.

남북, 4·27 판문점선언 이행 첫발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채택

군사 14일·체육 18일·적십자회담 22일 열기로
 6·15 공동행사 문서교환 방식 협의 추가 논의할 듯
 철도 연결·삼림 복원 등 추진 분과회의도 열기로

남북이 지난 1일 4·27 판문점선언 후속 이행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4·27, 5·26 정상회담 후속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어 장성급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일정 등을 확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을 오는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1월9일 개최된 고위급회담에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남북체육회담은 오는 18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 문제를 중

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은 오는 22일 북측 금강산 지구에서 진행된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행사 개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지난 2015년 10월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이후 방치됐던 관련 시설도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이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6·15 공동선언 18주년 공동행사 문제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회담을 마무리했다.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 내에 개설하기로 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가 사용하던 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물을 보수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6·15 공동행사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공동행사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북측이 이날 남측 지역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함에 따라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남북은 철도 연결과 산림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분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울가을 북측 예술단의 남측 공연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회담도 개최하기로 했다. 관련 일정은 판문점체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남북은 더불어 판문점선언 후속 이행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정례적인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도내 기업 중남미 수출 물꼬

도, 브라질·멕시코 현지 수출상담회서 현장계약 6만불 성사

전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중남미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브라질(상파울루), 멕시코(멕시코시티) 현지 수출상담회를 열어 총 81건, 상당액 1,001만불, 현장계약 6만불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도내 기업의 우수상품을 홍보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매년 6회 정도 유럽, 동남아, 러시아, 아프리카 등 해외 현지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된 이번 전북 중남미 무역사절단은 포스트차이나 국가 중 유일하게 포함된 멕시코와 중남미 최대시장인 브라질에서 상담회를 진행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9개기업 중 스키드러를 생산하는 정음소재 바우컴퍼니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멕시코 A사에 4만불(4,300만원 상당) 현지계약을 체결했으며, 황동 피팅(관 연결구)을 생산하는 군산소재 에헨테크는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2만불(2100만원 상당)의 현장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손톱 광택기 제조기업인 다인스는 브라질에서 3천불(300만원)의 샘플 주문을

받았다. 한편, 바우컴퍼니는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연간 150만불 규모로 거래량을 확대할 전망이다.

멕시코 시장의 경우 자동차 관련 다국적 기업들의 각축장이라 할 정도로 세계 우수기업들의 제조공장이 진출해 있으며 차후 태평양 연합(Pacific Alliance)기업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준 회원국 참여시 FTA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매우 기대되는 시장이다.

또한 브라질 시장 역시 중남미 지역 중 우리나라 최대 협력국이고 특히 한-메르코수르(남미 4개국 공동시장) 무역협정(FTA)협상이 무르익고 있어 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간 교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약2억9,000만명), 국내 총생산(GDP)의 76%(2조7,000억달러)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다.

지난해 전북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는 무역사절단을 6회 48개사를 파견하여 약 2,300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시킨 성과를 나타냈다. /김진성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